

世界的인 인플레이션과 韓國經濟

趙 德 九

<高麗大學校經濟研究所幹事>

1. 序 言

世界經濟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熱病을 앓고 있다. 現在 우리가 經驗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過去에 우리가 經驗하였던 것과는 그 樣相이 다르다. 그것은 世界的인 現象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同時的인 現象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것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stagnation+inflation) 또는 슬럼플레이션(slumplation)의 狀態를 나타내고 있다.

72年 下半期부터 시작된 이러한 世界的인 인플레이션은 1930年代의 大恐慌以後 처음으로 國際經濟에 커다란 衝擊을 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海外依存도가 높은 後進國들의 經濟는 그 深刻性이 매우 큰 것이다. 많은 理論과 政策이 打開策을 講究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의 극성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인플레이션의 理論의 根據와 世界的인 인플레이션의 現況 및 背景을 一瞥하고 慢性的인 인플레이션에 國際 인플레이션이 加重되어 있는 우리나라 經濟의 立場을 考察해 보고자 한다.

2. 인플레이션의 理論

一般的으로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 하면 一般物價水準이 持續的으로 上昇하는 過程을 말한다. 物價가 年率 4~5% 以上으로 계속 上昇하는 경우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原因에는 國民經濟全體에서 總需要가 總供給을 超過하여 物價水準이 上昇한다는 需要增大說(demand-pull theory)과 需要側面보다는

供給側面에서의 生産費가 增大하여 物價水準이 上昇한다는 費用引上說(cost push theory)이 있다.

먼저 需要增大說은 케인즈(J. M. Keynes) 理論과 貨幣數量說로 大別하여 考察할 수 있다. 케인즈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은 總需要가 完全雇傭 產出量을 超過할때 發生한다고 한다. 不完全雇傭 狀態下에서 總需要가 增加하면 企業家は 이제까지 遊休狀態에 있던 資本設備를 稼動하고 새로운 勞動者를 雇傭하여 生産量을 增加시킨다. 그러면 原料費, 賃金 등이 經濟部門에 따라 상승하여 製品價格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 하여 經濟가 完全雇傭에 도달하기 전에 發生하는 物價上昇現象을 隘路 인플레이션(bottleneck inflation)이라고 한다.

그리고 經濟가 完全雇傭에 도달하면 總需要가 增加하더라도 產出量은 더이상 增加할 수 없으므로 財貨를 購入하려는 사람들의 努力은 다만 物價를 上昇시킬 뿐이다. 이와 같이 完全雇傭以後에 發生하는 物價上昇現象을 眞正 인플레이션(true inflation)이라고 한다.

貨幣數量說에 의하면 다른 條件이 일정하다고 할 때에 貨幣供給이 貨幣需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過多하면 인플레이션이 發生한다는 것이다.

다음에 費用引上說은 賃金引上說과 利潤引上說로 大別하여 考察할 수 있다. 賃金引上說에 의하면 賃金은 企業家の 立場에서 보면 生産費의 일종이므로 賃金引上은 生産費의 增大를 뜻한다. 製品價格이 일정할 때 生産費가 상승하면 企業家에 돌아가는 利潤이 減少하므로 企業家は 당연히

製品價格을 상승시킴으로써 자신의 利潤을 지키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 또는 몇개의 産業에서 賃金과 製品價格이 上昇하게 되면 그것은 他産業의 賃金인상과 製品價格의 上昇으로 波及된다. 이렇게 하여 經濟全體에 걸쳐 물가가 상승하고 生計費가 상승하면 勞動組合은 다시 賃金を 상승시키는 賃金—物價의 惡循環이 繼續된다.

利潤인상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勞動者의 賃金인상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企業家 특히 獨寡占企業家들이 利潤을 增加시킬 목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原因이 있다는 것이다.

以上에서 본 需要增大說과 費用인상說은 어느 하나의 理論이 옳다고 斷言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두 理論을 結合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을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對策으로서 需要增大說은 緊縮政策을 主張한다. 즉 케인즈 理論을 主張하는 者들은 總需要를 抑制하기 위하여 政府支出을 減縮하거나 租稅收入을 증가시키는 緊縮財政政策을 그리고 貨幣數量說을 주장하는 者들은 通貨量을 감소시키는 緊縮金融政策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다음에 費用인상說을 주장하는 者들은 政府가 直接 價格 및 賃金の 決定 메카니즘에 간섭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防止하는 政策을 使用할 것을 勸告한다.

3. 世界 인플레이션의 現況과 背景

최근의 主要國別物價推移를 보면 72年 下半年부터 上昇勢를 보이기 시작하여 73년에는 거의 每月 持續的인 上昇勢를 示顯하였고 74년에 와서도 계속 오름세를 보였으며 今年에도 누그러질 줄을 모르고 있다. 韓國銀行이 인용한 자료에 의하면 美國의 경우 1968~72年 平均 3.6%, 4.6%이던 都賣物價와 消費者物價上昇率은 73年 12月中에는 前年同月對比 18.2%, 8.8%로 各各 상승하였다. 그리고 74年 5月末現在 都賣物價는 前年同月對比 17.7% 올랐다.

日本의 경우는 68~72年 平均 1.3%, 5.8%이던 都賣物價와 消費者物價가 73年 12月中에는 前年同月對比 29.0%와 19.1%로 各各 急騰하였고 74年 5月末 現在 都賣物價는 前年同月對比 35.3%

나 상승하였다.

英國의 경우는 68~72年 平均 5.9%, 6.6%이던 都賣物價와 消費者物價가 73年 12月中에는 前年同月對比 10.2%, 10.6%로 各各 상승하였고 75年 5月末에는 前年同期對比 24.5%가 上昇하였다.

西獨의 경우는 68~72年 平均 4.0% (生産者價格指數) 3.5% (消費者物價) 이던 것이 73年 12月中에는 前年同月對比 都賣物價 8.5%, 消費者物價 7.8%를 示顯하였다. 그리고 74年 5月末 현재 前年同期對比 13.5%의 都賣物價上昇率을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의 物價는 68~72年 平均 5.2%, 5.5%이던 都賣 및 消費者物價가 73年 11月中에는 前年同期對比 15.4%, 8.4%로 各各 上昇하였다.

이러한 世界的인 인플레이션의 原因은 첫째 過剩通貨供給이다. 過剩通貨供給은 政府의 必要와 資本의 要求에 의해서 加速化되었다.

둘째는 한 國家 안에서 獨寡占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國際的으로도 寡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 한편 多國籍企業은 세계적으로 進出하게 되는데 이러한 一聯의 事態는 管理價格을 형성케 하고 物價의 下方硬直性을 나타낸다.

셋째는 資源 내셔널리즘을 들 수 있다. 73年 下半年에 있었던 오일 쇼크를 계기로 하여 資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팔려고 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싸게 팔려고 한다. 이러한 資源保有國들의 行態가 또 다른 物價를 올리는 結果가 된다.

네째는 勞動組合의 攻勢이다. 勞動者들의 團結은 組織的인 抵抗力을 갖게 되었고 그것은 賃金의 上昇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賃金의 上昇은 코스트·푸쉬要因이 된다.

다섯째는 달러貨의 價值低落이다. 달러貨는 世界經濟에 있어서 基軸通貨(key currency)의 位置에 있다. 따라서 달러貨의 濫發現象은 各國通貨의 增發을 誘導하게 되어 인플레이션의 現象을 擴散시킨다.

여섯째 後進國 특히 資源이 부족한 後進國의 높은 輸入依存度이다. 後進國은 輸入依存도가 높기 때문에 先進國의 인플레이션 또는 資源保有國의 높은 價格政策을 그대로 轉嫁받기 마련이다.

이 이외에도 세계적인 農產物의 凶作, 通貨不安에 따른 換物投機 등을 들 수 있다.

4. 世界 인플레이션과 韓國經濟

우리 나라經濟는 그 構造的 特徵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인플레이 狀態가 持續되어 왔다. 여기에 昨今の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加重되어 海外依存度가 높은 우리 經濟는 새로운 陣痛을 겪고 있는 것이다. 먼저 韓國經濟의 構造的 特徵을 보면 대체적으로 ① 資源構造面 ② 生産構造面 ③ 市場構造面으로 區分하여 알아 볼 수 있다.

資源構造面에서 볼때 우리나라는 ① 過剩人口를 가지고 있으며 ② 自然資源이 不足하고 ③ 資本과 技術 또한 不足하다. 그리하여 生産構造面에서 ① 生産力이 低位에 놓여 있고 ② 따라서 産業의 對外依存性이 높은 것이다. 市場構造面에서는 ① 商品市場이 超過需要狀態에 놓여 있고 ② 資本市場 역시 超過需要狀態에 놓여 있으며 ③ 勞動市場의 過少雇傭과 ④ 貿易市場의 不均衡이란 特徵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總需要가 總供給을 超過함으로써 생기는 超過需要 때문에 항상 인플레이션 狀態에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段階的으로 特徵이 있는데 첫段階인 1945년부터 50년까지는 政治, 經濟, 社會의 混亂으로 財政需要의 膨脹과 通貨增發에 基因한 螺旋的인 인플레이션이었으며 1950년부터 55년까지는 6.25 動亂으로 因한 戰時인플레이션이었다. 1955년부터 60년까지는 비교적 經濟安定을 회복하였고 螺旋的인 인플레이션은 면하였으나 經濟全般의 超過需要로 高率의 인플레이가 持續되었다. 60年以後에도 超過需要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었는데 이때의 超過需要는 消費需要보다 相對的인 投資需要의 增大에 주로 기인되었다. 즉 開發인플레이션이란 特徵이 있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만성적인 인플레이션下에 있던 우리나라 經濟에 새로운 世界的인 인플레이션이 加重된 것이다. 이러한 世界的인 인플레이션은 우리나라의 物價를 계속 上昇시키고 있으며 外資導入과 貿易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食糧波動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의 全國都賣物價는 지난 74年中

약 50%가 上昇했는데 이것은 73年 한해동안의 上昇率 15.1%의 3倍以上이 되는 것이다(12.7措置의 影響도 있으나).

그리고 今年 들어서도 계속 物價의 上昇趨勢는 누그러지질 않고 있으며 앞을 展望이다. 國內要因이 주가 되는 경우의 物價騰貴는 強制貯蓄의 手段으로서 利用되는 수도 있으나 海外要因이 加勢된 昨今の 物價騰貴는 一般庶民大衆의 貯蓄餘力을 근본적으로 잠식함은 물론 國民資本形成에도 커다란 負의 效果를 가져 오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外資導入과 世界的인 인플레이션을 보면 우리나라는 앞서 본 經濟의 構造的인 特徵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1.2次經濟開發計劃을 실시하였고 현재도 80年代目標達成을 위하여 經濟開發計劃을 實施中에 있다. 經濟企劃院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59年 우리나라가 外資(有償)를 처음 導入한 以來 74年 6月末까지 15年 동안 導入된 外資總額은 68억 1백 24만달러로 밝혀졌다. 그리고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美國으로부터 48억 8천 2백만달러의 無償經濟援助와 UNDP 및 美國 등으로부터 1억 7천만달러의 無償技術援助를 받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많은 外資에 의하여 經濟開發을 遂行해 왔고 앞으로도 所要財源을 外資에 의존할 立場에 놓여 있는 것이다(重化學工業의 推進등을 위하여 81년까지 1백억달러의 外資를 追加導入할 豫定). 이와 같은 우리의 立場에서 볼 때 世界的인 인플레이션은 外資의 實質的인 價値下落을 초래하고 앞으로의 外資導入展望도 暗淡 처럼 순조롭지 못하여 우리 經濟에 많은 차질을 가져다 주는 결과가 될 展望이다.

다음 우리나라는 그동안 外資稼得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輸出主導型政策을 실시하여 刮目할 만한 輸出伸長을 示顯하였다. 반면 資源不足으로 인하여 輸出商品의 原資材輸入이 증대되었고 開發需要와 低生産性과 低生産力에 基因한 절대적인 供給不足에서 오는 商品 및 資本市場에서의 超過需要를 카머하기 위하여 輸入 또한 增大되었다. 우리나라의 貿易依存度는 약 70%나 되는데 이와 같은 높은 海外依存度 때문에 國際經濟의 好況, 不況은 우리에게 그대로 反映되고 있다.

특히 국제 인플레이에 의한 原資材價格의 상승은

우리에게 外貨負擔을 加重시키며 輸出商品에 코스트 푸쉬 要因이 되어 輸出에 打撃을 주고 있다. 그리고 世界 인플레이에 의한 海外市場의 需要 抑制은 우리에게 輸出伸長이란 中絶의 危機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貿易構造가 美·日에 主로 偏重되어 있기 때문에 美·日의 經濟는 우리의 經濟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제에 輸出入의 多邊化가 要望된다. 輸出入의 多邊化는 어려운 일이지만 꼭 改善해야 할 問題인 것이다.

다음에 世界的인 인플레이는 새로운 食糧波動을 야기시켜 우리에게 커다란 打撃을 주고 있다. 세계적인 食糧波動은 세계적인 農産物의 凶作과 石油波動과 資源戰爭, 美國의 國際收支改善方便 등의 復合作用으로 심화되어 가격이 3배 이상(밀이 톤당 80달러에서 240달러, 米穀이 톤당 1백50달러에서 6백달러로) 急上昇하였고 購入도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食糧自給率은 약 70% 정도이다. 그러기 때문에 年間 약 3백만톤의 糧穀을 外國 主로 美國에서 導入하는 實情이다. 外穀輸入量은 해마다 증가하여 64년에 84만톤이던 것이 73년에는 3백27만톤으로 10年間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外穀導入價格은 64년의 6천만달러에서 昨年에는 약 8억달러를 돌파하여 物量面의 4배에 비하여 무려 13배 이상으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食糧導入負擔은 작년 輸出額 47억달러의 약 17%에 해당되며 外貨稼得率을 70%로 보면 外貨稼得額 33억달러의 약 25%에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食糧自給率이 70%線에 머물고 있는 것은 첫째 美國剩餘農産物에 그동안 依存하여 왔고 둘째 低穀價政策에 의한 食糧增産意欲의 減退에 있는 것이다.

石油波動과 資源波動 그리고 食糧波動은 우리 經濟를 하루 아침에 困境에 몰아 넣은 것이다.

5. 우리의 對策

케인즈에 의하면 雇傭量과 國民所得은 有效需要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有效需要는 消費需要와 投資需要로 구성되며 消費需要는 限界消費性向에 의하여 그리고 投資需要는 資本의 限

界效率에 의하여 決定된다.

따라서 消費需要의 증대는 有效需要를 증대시켜 所得을 증대시킨다. 그러므로 貯蓄은 개인에게는 美德이나 社會的으로는 惡德이며 消費가 美德이 된다. 이러한 케인즈 理論은 先進國에는 妥當할지 모르나 우리나라와 같이 低生産力構造下에서는 타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플레이션만을 초래한다.

다시 말하여 인플레이 冑 狀態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消費增大는 貨幣所得만을 증대시켜 超過需要만을 助長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超過需要는 投資需要보다 消費需要의 상대적인 過多에 근본적인 原因이 있는 것이다.

投資需要의 增大는 經濟開發이란 긴 眼目으로 볼 때 不可避하다고 하겠으나 이 部門도 可能한 限 減少시켜야 하고 消費需要는 最大限 抑制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消費需要는 基礎消費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破局點 以上の 消費需要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消費需要의 增大는 消費性向이 높은데에 그 原因이 있다. 消費性向은 듀젠베리(Duesenbery)가 말하는 展示效果에 의하여 높아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例外는 아닌 것 같다. 展示效果는 消費客體에서 影響을 많이 받는다. 그러므로 非生産的인 消費客體를 아직은 우리 주위에서 整理하여야 할 것이다.

人間的 欲望은 無限한데 이를 충족시켜 주는 手段은 有限한 것이다.

無限한 欲望과 有限한 手段의 冑(gap)이 심할 때 展示效果에 의한 消費性向의 증대는 경제적인 問題外에 經濟外的인 社會惡이 뒤따를 수도 있는 것이다. 展示效果를 줄이고 消費性向을 낮춘은 물론 投資需要도 國際經濟가 好轉될 때까지는 可能한 限 抑制함으로써 總需要를 抑制하는 것만이 만성적인 인플레이와 세계적인 인플레이의 영향을 줄이는 지름길인 것이다. 또 3次産業中 住宅, 不動產投機, 都小賣業 등 서비스 部門의 異常的인 肥大에도 강력한 拘束을 가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cost-push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賃金上昇보다는 原資材의 國際價格上昇이 큰 原因이 되고 있기 때문에 原資材의 수입을 多邊化시켜야 할 것이다. 수입의 多邊化는 국제 경기의

波及效果를 그만큼 분산시키기 때문이다.

또 原資材의 海外依存度가 높으면 國內經濟가 海外經濟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므로 輸入代替産業을 더욱 육성시켜 海外依存度を 낮춤으로써 國際景氣에 휘말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獨寡占企業들이 利潤增大를 목적으로 價格을 인상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점도 再考되어야 할 것이다.

일찍이 슈페터(Schumpeter)는 企業家は 經濟發展의 中心人物이므로 健全한 企業家 精神이 發揮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음에는 食糧自給率의 提高이다. 財政問題도 考慮되어야 하겠지만 高米價政策을 보다더 실시하여 增產意欲을 고취해야 할 것이다. 農業開發은 農民만을 위해서라기보다 工業의 市場確保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昨年의 世界的인 인플레이로 輸出産業이 큰 打擊을 받고 있는데 이들의 在庫品累積을 國際景氣回復時까지 內需로 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農材購買力의 增大가 時急한 것이다.

6. 結 言

이상에서 概括적으로나마 世界的인 인플레이션 現況과 背景 그리고 世界經濟와 우리나라 經濟의 관계 등을 고찰하였다. 資本主義經濟의 論理란 항상 追求에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國際經濟의 狀況에 따라 各國의 經濟關係는 日모 한 變化를 갖게 마련이다.

複合的인 要因에 의하여 深化된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世界經濟는 30年代以上の 大不況을 맞고 있으며 따라서 自國의 이익을 위하여 國際經濟秩序는 保護貿易의 경향으로 기울고 있다.

그 結果 後進國 특히 資源이 不足한 後進國은 自立方向을 잃을 정도로 심한 惡影響을 받고 있는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輸出增大와 이를 통한 經濟成長을 追求하려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커다란 制約要因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國際收支에도 惡影響을 끼치고 經濟成長에도 沮害要因이 되기 때문이다. 즉 國內인플레이션은 國產品의 價格을 相對的으로 上昇시키기 때문에 값싼 外國產品의 輸入이 增大되고 비싸진 國產品의 輸出은 減少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증가되면 企業家의 投資를 增加시키고 經濟成長을 增大시키는 效果가 있으나 급속하게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 企業家は 合理的인 計算을 할수 없기 때문에 生産活動보다는 차라리 投機活動을 助長하기 때문이다. 당분간 어렵더라도 總需要를 抑制하여 만성적인 國內인플레이션과 世界的인 인플레이션의 影響을 줄여야 할 것이다. 오늘의 需要抑制는 來日을 위하여 美德이지 결코 惡德인 것은 아니다.